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당당하게 임하겠다”

“검찰과 조율 거쳐 출두 결정”

소환 관련 민주 내부 이견도 잠잠 수사 검사 신상 공개 큰 파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 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8일 소환 통보한 것과 관련, 당장 소환에 응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반격에 나선 모습이다.

‘방탄 정당’ 등의 비판 속에 수세에 몰린 정국을 반전시키고, 당 내부의 균열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8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이 있고 분회의도 예정되어 있어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28일) 그 후에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은 검찰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이미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고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면서 “조사의 일시와 방식에 대해선 변호인을 통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당장 검찰 소환에는 응하지 않겠지만, 향후 검찰과 조율을 거쳐 사실상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응하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 의견이 엇갈렸던 민주당 내부도 일단 잠잠해질 전망이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왔다. ‘진이재명’ (진명) 계를 중심으로는 검찰의 야당 탄압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한 반면, ‘비이재명’ (비명) 계에서는 몇몇하게 조사에 나서서 당으로 향하는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당대회의실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진명계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 지부부는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며 검찰을 강력 비판했다. 박용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바우처’가 계속되면 특검으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정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출석 요구에 대해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용 무리한 출석 통보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뜻땀하게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MBC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에서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의 정치공작을 비판하는

만큼 공세에 뒷걸음질 치지 말라”며 “생측사 사측생’ 각으로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본인이 당당하면 검찰 조사에 응하면 된다. 이게 국민의힘과 차별점을 들 수 있는 이슈”라며 “이 대표 혼자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 16명의 신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도 이견이 노출됐다.

당 검찰독재정치탐압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이 이를 ‘좌표 찍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정치검찰이 성과를 알릴 때는 이름과 사진이 널리 공개할 정보이고, ‘조사 수사’로 궁지에 몰릴 때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좌표 찍기’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검사와 관련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위”라며 “검찰권도 준사법권으로서, 권력의 압박뿐만 아니라 여론의 압력으로부터 차단되고, 그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민주당 일부 기구의 행위라 할지라도 매우 몰상식적이고, 위험스럽고, 이성을 잃은 형태”라고 덧붙였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당무감사원 고문에

박지원 前 국정원장 위촉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당무감사원’ 고문으로 최근 복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위촉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 국정원장, 4선 의원으로서의 여러 경륜을 감안한 인사”라며 이같이 전했다.

당무감사원장은 3선 이학영 의원이 맡는다.

당무감사원은 당내 집행기구 및 사무처의 당헌·당규 준수 여부, 직무유기 등을 감독·감찰하는 기구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공석인 민주연구원장에 정태호 의원을 지명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학영 의원은 3선 중진으로서의 경륜을 감안했고, 정태호 의원은 과거 청와대 대변인·당 전략기획위원장·정책위원회 수석부 의장 등을 (거친) 이력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재명 광주·전남 경청 투어...어떤 메시지 내놓을까

오늘·내일 이틀간 방문

정부·검찰 비판 목소리 낼 듯

27일 전남, 28일 광주에서 경청 투어를 진행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록적 폭설 때문에 호남지역 피해가 막심하다”며 “안 그래도 겨울 가뭄으로 고생 많이 했는데, 폭설로 고통을 받는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내일(27일) 당 지도부가 호남지역을 방문해 폭설 피해 상황을 세심히 살피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를 불응하고 광주를 찾음에 따라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주목된다. 아직 구체적 내용이나 발언 수위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법 리스크’와 관련, 검찰과 여론에 대한 강력한 비판 메시지가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이 대표의 발언 수위는 점차 높아져 왔다. 이달 13일 충청권에서 진행된 ‘국민속으로, 경청투어’에서 이 대표는 “수많은 사람이 목숨 바치고, 피 흘려 만든 민주주의가 몇 달 사이에 유신 이전으로 후퇴한 것 같다”라며 “군사정권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불안해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지난 22일 검찰의 성남FC 관련 소환 통보에 대해 이 대표는 “지금 야당을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 데 힘을 쓸 때냐”라며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냐”라며 직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28일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를 방문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사법리스크에 대한 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남 민심의 강력한 지지가 전제되어 사법리스크로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생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의 출석 요구를 불응한 이 대표가 광주의 경청투어에서 강력한 대어 비판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이 같은 행보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거나 내부의 단일대오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힘 광주시당·광주시 협조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예산 확보

올해 정부 공모 사업에서 한 차례 탈락한 국립 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이 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예산 확보는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직접 나서 광주시와 협조체계를 구축, 중앙당을 설득해 이뤄진 것이어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김정현)은 29일 “내년 정부 예산에 신규로 국립 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예산 160억원 중 설계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립 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국가 사업으로, 정서나 행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제주지역 청소년의 상담·치료와 보호·자립 등 지속형 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청소년 복지시설이다.

내년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내년도 설계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에 국립광주청소년재활센터가 개관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광주시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했지만, 올해 8월 공모에서 탈락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사업 추진의 물꼬를 트게 됐다.

김정현 시장위원장은 “국립 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예산을 어렵게 확보한 만큼,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지역 청소년단체 등과 함께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국힘 “전대병원 신축 예타

기재부 통과 책임 지겠다”

국민의힘이 27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전남대병원 신축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자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26일 국회에서 성일중 정책위의장과 김정현 광주시당위원장, 문충식 광주동남을 당협위원장,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윤경철 전남대병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일중 정책위의장은 “지난 8월 행정 절차상 미흡으로 전대병원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아쉬웠다”며 “27일 열리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회의에서는 반드시 예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예타가 통과되면 응급합병 디지털 의료시스템을 갖춘 미래형 뉴 스마트 병원을 건립하겠다”며 “수도권과의 건강 격차를 해소해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시장위원장은 “전남대 새 병원이 건립돼 광주·전남 사·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면서 “전남대병원 새 병원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당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p>전원주택 (1채) → 8,000만</p>	<p>상가매매(상무지구) (유형적합)</p>	<p>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기초반, 중급반]</p>																
<p>① 세컨하우스 ② 소형 주택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④ 주말 하우스 최고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p>  <p>(장성댐 5분) (등산로 있음) (6M도로 접)</p>	<p>▶ 중심 상업지구 (유형 적합) (6층,7층) = 140평 시세 → 10억 → 급매 7억</p> <p>보3천 월 380만 (용 4억5천)</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td> <td>감정가 3억9천원 → 최저가 3억9천원</td> </tr> <tr> <td>남구 임암동 (근린상가) 2층 ▶</td> <td>감정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td> </tr> <tr> <td>서구 매월동 (자동차상가 7층) ▶</td> <td>감정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td> </tr> <tr> <td>광산구우산동 (근린상가) 2층 ▶</td> <td>감정가 6억1,700 → 최저가 2억7,600</td> </tr> <tr> <td>광산구소촌동 (대지 41평) ▶</td> <td>감정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td> </tr> <tr> <td>북구우산동 (주택) ▶</td> <td>감정가 1억4천원 → 최저가 8천300만</td> </tr> <tr> <td>서구화정동 (주택) ▶</td> <td>감정가 1억8,500원 → 최저가 1억2,900</td> </tr> <tr> <td>북구운암동 (아파트) 박산블루 ▶</td> <td>감정가 7억7,700원 → 최저가 3억2,300</td> </tr> </table>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원 → 최저가 3억9천원	남구 임암동 (근린상가) 2층 ▶	감정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	서구 매월동 (자동차상가 7층) ▶	감정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	광산구우산동 (근린상가) 2층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 2억7,600	광산구소촌동 (대지 41평) ▶	감정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	북구우산동 (주택) ▶	감정가 1억4천원 → 최저가 8천300만	서구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8,500원 → 최저가 1억2,900	북구운암동 (아파트) 박산블루 ▶	감정가 7억7,700원 → 최저가 3억2,300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원 → 최저가 3억9천원																	
남구 임암동 (근린상가) 2층 ▶	감정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																	
서구 매월동 (자동차상가 7층) ▶	감정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																	
광산구우산동 (근린상가) 2층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 2억7,600																	
광산구소촌동 (대지 41평) ▶	감정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																	
북구우산동 (주택) ▶	감정가 1억4천원 → 최저가 8천300만																	
서구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8,500원 → 최저가 1억2,900																	
북구운암동 (아파트) 박산블루 ▶	감정가 7억7,700원 → 최저가 3억2,300																	
<p>010-6670-9800</p>		<p>010-2614-9801</p>																